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of Newsletter

발행인 : 오병훈 / 편집인 : 김기웅 / 발행처 : 오병훈 (464-100)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6-6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 정신과 / TEL : 031-765-0443 / FAX : 031-761-7582
발행일 : 2010년 11월 10일 / 제 작 : (주)엠엘커뮤니케이션 140-846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동 12-15 / TEL : 02-717-5511 / FAX : 02-717-5515

Contents

- 02 | 권두언
- 03 | 학술 활동 소식
- 06 | 해외학회 참관기
- 09 | 학술대회 안내
- 11 | 회원 동정
- 12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원진

| 권두언 |

이팔청춘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
서울의대 정신과 교수
조 맹 제

‘이팔청춘과 노인’ 다소 생소한 어울림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주 다정한 느낌도 든다. 사람이 언제부터 늙어 가느냐를 꼭 생물학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한창 꽃같이 피어난 이팔청춘이 노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1988년에 서울대학교 본과 3학년 정규 강좌에 ‘노인정신장애와 치매’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강의를 맡았다. 솔직히 그 당시만 해도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들이 적었고 (인구의 4.2%, 평균수명 70세에 불과했으니까) 강의를 하는 나도 ‘치매(癡?)’란 용어 자체마저 친숙하지 않았다. 치매의 분류도 엉성하고冊마다 다르기도 해서 50분의 짧은 시간에 이 큰 주제를 어떻게 소개해 줘야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 당시 내 나이가 38살 이었는데 소아과학 강의에는 모두 나이 지긋하신 저명한 노교수님들이 즐비하였는데 유독 ‘노인’이란 타이틀의 강좌를 맡고 있는 나는 40세미만의 어린 중년이였다. 다행(?) 일찍부터 넓어진 이마 덕분에 그래도 노인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덜 어색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다. 얼마 후 장기연수를 가고자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당시에 미국에서도 그렇게 잘 조직된 ‘노인정신과’가 거의 없었다. 서구 선진국에서도 당시가 아마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성 정신장애가 큰 사회문제가 되는 시기였던 것 같다.

서두에 왜 ‘이팔청춘’ 타령을 했는고 하니 금년이 우리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창립 16돌이 되는 해라 마침 이 자리에 취임하게 된 감회를 이렇게 엮어 보았다. 실상 우리 학회는 지금 이팔청춘처럼 무르익었다.

1994년 광동일 초대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대한 노인정신의학회’ 창립에 참가하였다. 당시만 해도 국내서 노인을 전공한 분들이 몇 몇 되지 않았고 솔직히 별로 인기도 없는 분야였다. 어떤 동료 회원들은 ‘요즘 모두 소아정신과 하려는데 누가 노인정신의학회에 관심 있겠어?’ 하고 약간은 비아냥스러운 멘트를 던지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 ‘노인정신의학회’를 창립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통계 자료에서 맨 날 보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이다. 무엇이든지 하면 ‘최고로 빨리’하는 나라의 명성답게 불과 16년 만에 노인인구가 엄청나게 급증하였고 특히 노인의 의료 이용률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의료비 지출도 25%에 달하였다. 따라서 정신과를 포함한 많은 분야의 의사들의 노인 환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함도 당연하다.

우리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학술대회나 심포지움에는 특별히 청중을 모으려 애쓰지 않아도 항상 만석이다. 노인정신의학회에 대한 절박한 관심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비교적 늦게 출범한 학회지만 돌이켜보면 그간 참 숨 가쁘게 달려왔다는 느낌이 든다. 10년 만에 ‘범태평양 국제학회’를 개최하였고 수차례의 국제 심포지움도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세계 각국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가들과 교류도 활발하였고,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2013년도에는 세계노인정신의학회(IPA)주최국도 될 전망이다. 이 모두가 우리 회원·임원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전임 이사장님들의 탁월한 지도력과 헌신적 활동의 결과이다.

나는 이제는 우리 학회가 좀 내향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팔청춘이 되기까지 계속 키가 크고 성장해 왔듯이 이제는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그간 회원들의 노력으로 정신과 의사들의 노인정신장애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가히 국제수준에 도달했다고 본다. 연구 성과 또한 만만치 않다. 노인 요양보험제도의 도출등 주요 국가 정책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신적 삶의 질’은 아직도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노인자살율은 10만 명당 100을 오래전 돌파하여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숫자일 뿐 아니라, G20국의 경제규모나 의학수준에 비교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이다. 절반의 노인들이 삶에 지쳐 있다는 보고가 있고, 네 명중 한 명은 우울하며 그중 절반은 꽤 심각한 우울증상을 겪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8.4%가 치매라는 연구보고서도 나왔고 실제 치료접근성은 10%미만이다. 70%의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고하며 노후대책이 없다고 한다.

학회의 하드웨어와 학문적 소프트웨어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고 자부해본다. 이제는 실용적 소프트웨어의 진전에 힘써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좀 더 노인들 한분 한분에게 다가가는, 그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심포지움 등을 통하여 후배나 회원들의 노인 정신장애의 의학적 지식 기반을 넓히는 일도 소홀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좀 더 행복한 노년기를 꿈꾸고 향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들의 노후준비 대책에 대한 구체적 안 마련과 우울증, 치매 노인들에게 지역사회 outreach service 제도 구축에 우리 회원들이 앞장서야겠다. 다행히 서울시의 경우 모든 지자체구에 치매센터와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나갈 전망이다. 이들 기존의 기관들과 적극 연계하여 정신건강 취약계층들의 조기 인지과 이들에 대한 구체적 service 제공을 위한 방안에 회원 모두의 동참을 부탁 드린다. 디지털 시대에 지역사회와 소비자(consumer)를 외면한 학문이나 학회는 발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도 한 발자국씩 다가가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 속에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되었으면 한다.

급속한 노령화 사회에서 노년기 준비 등, 중년층들의 노후 설계도 정신과 의사들이 주도적 관심을 갖고 타 분야와 협동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평균수명이 늘고 오래 산다 한들 우울증이나 치매 등으로 노년기를 지낸다면 장수의 보람도 없이 그간 한 인간으로서 쌓아온 존엄만 잃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정서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즐기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을 마련에 우리 대한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또 다른 역할을 감히 기대해 본다.

| 학술활동소식 |

- 2010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일 시 2010년 4월 9일(금) 09:30 ~ 18:00
장 소 삼성서울병원 지하 1층 대강당 및 중강당
주 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09:00~10:00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록

■ 연수교육

사회: 김어수 (총무간사)

노인에서 흔한 심혈관계 - 대사장애의 이해와 치료

좌장: 정한용 (순천향대), 이창욱 (가톨릭의대)

10:00~10:30 고혈압의 평가와 약제의 선택

성지동 (성균관대)

10:30~11:00 뇌졸중의 약물치료

이경열 (연세의대)

11:00~11:30 당뇨병의 치료

김재현 (성균관대)

11:30~12:00 노인 환자 약물처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실수들

이은주 (울산대)

12:20~12:50 Luncheon Symposium(ISS)

■ 춘계학술대회

사회: 김도관 (학술이사)

13:30~13:40 개회사

오병훈 (이사장)

“노년기 우울증의 이해와 치료 I”

좌장: 정인과 (고려대), 오병훈 (연세대)

13:40~14:05 우리나라의 우울한 노인은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가? 건강보험자료에 근거한 분석

백종우 (경희대)

14:05~14:30 Prospective study of bereavement and subsyndromal depression in late-life

박준혁 (제주대)

14:30~14:55 Stress, mood and cognition; Relationship and treatment implication

한창수 (고려대)

14:55~15:20 Vascular depression and dementia

김혜란 (계요병원)

15:20~15:35 Q & A

15:35~15:50 Coffee Break

“노년기 우울증의 이해와 치료 II”

좌장: 연병길 (한림대), 신영민 (북북노인병원)

15:50~16:15 Current CPG of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depression in late-life

이영민 (부산대)

16:15~16:40 Gene and environmental interaction of suicidal behavior

김용구 (고려대)

16:40~17:15 Target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uicidal behavior

오강섭 (성균관대)

17:15~17:30 Q & A

17:30~18:00 폐회 및 임원회의

| 학술 활동 소식 |

- 제2차 치매 진료 의사 전문화 교육 -

일 시 파트1 / 2010. 5. 15(토) ~ 5.16(일), 파트2 / 2010. 5. 29(토) ~ 5.30(일)
장 소 서울대병원 본관 지하1층 A 강당(15, 16, 30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29일)
주 최 보건복지가족부,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치매협회

5월 15일(토)

08:30-09:00	등록 및 접수	
09:00-10:00	치매의 사회적 중요성	하 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10:00-11:00	뇌의 구조와 기능 I	양동원 (가톨릭의대)
11:00-12:00	뇌의 구조와 기능 II	양동원 (가톨릭의대)
12:00-13:00	Lunch	
13:00-14:00	뇌영상의 기초	한설희 (건국대의대)
14:00-15:30	치매란 무엇인가?	이동우 (인제의대)
15:30-17:00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김상윤 (서울의대)
17:00-18:00	질의 및 응답	

5월 16일(일)

08:30-09:00	등록 및 접수	
09:00-10:00	치매의 감별진단	김성윤 (울산의대)
10:00-12:00	인지기능평가 Workshop: 강의 및 비디오 실습	최성혜 (인하의대)
12:00-13:00	Lunch	
13:00-15:30	치매단계(GDS) 평가 Workshop: 강의 및 비디오 실습	홍창형 (아주의대)
15:30-17:00	일상생활기능 평가 및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Workshop: 강의 및 비디오 실습	박기형 (아주의대)
17:00-18:00	질의 및 응답	

5월 29일(토)

08:30-09:00	등록 및 접수	
09:00-10:30	행동심리증상 섬망	한명일 (마음사랑병원)
10:30-12:00	경도인지장애	이재홍 (울산의대)
12:00-13:00	Lunch	
13:00-14:00	치매의 치료	김도관 (성균관의대)
14:00-15:30	치매관련제도	한일우 (용인효자병원)
15:30-17:00	치매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최상섭 (국립법무병원)
17:00-18:00	질의 및 응답	

5월 30일(일)

08:30-09:00	등록 및 접수	
09:00-10:30	증례분석 및 치료계획수립 실습 (1) - AD	김기웅 (서울의대)
10:30-11:15	증례분석 및 치료계획수립 실습 (2) - Vascular	나해리 (보바스기념병원)
11:15-12:00	증례분석 및 치료계획수립 실습 (3) - Dementia with BPSD	신일선 (전남의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증례분석 및 치료계획수립 실습 (4) - FTD	정지향 (이화의대)
14:00-17:00	시험	
17:00-18:00	수료식 및 댄스	

| 학술활동소식 |

- 제2차 치매 진료 의사 전문화 교육 -

일 시 파트1 / 2010. 8. 28(토) ~ 8. 29(일), 파트2 / 2010. 9. 11 ~ 9. 12(일)
장 소 인제대의 부산캠퍼스 1층 대강당
주 최 보건복지가족부,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치매협회

8월 28일(토)

08:30-09:00	등록 및 접수	
09:00-10:00	치매의 사회적 중요성	하 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10:00-11:00	뇌의 구조와 기능 I	양동원 (가톨릭의대)
11:00-12:00	뇌의 구조와 기능 II	양동원 (가톨릭의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뇌영상의 기초	한설희 (건국의대)
14:00-15:30	치매란 무엇인가?	이동우 (인제의대)
15:30-17:00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김상운 (서울의대)
17:00-18:00	질의 및 응답	

8월 29일(일)

08:30-09:00	등록 및 접수	
09:00-10:00	치매의 감별진단	김성환 (동아의대)
10:00-12:00	인지기능평가 워크숍: 강의 및 비디오 실습	윤보라 (건양의대)
12:00-13:00	점심식사	
13:00-15:30	행동심리증상 상담	한명일 (마음사랑병원)
15:30-17:00	일상생활기능 평가 및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워크숍: 강의 및 비디오 실습	강희영 (경상의대)
17:00-18:00	질의 및 응답	

9월 11일(토)

08:30-09:00	등록 및 접수	
09:00-10:30	치매단계(GDS) 평가 워크숍: 강의 및 비디오 실습	홍창형 (아주의대)
10:30-12:00	경도인지장애	박경원 (동아의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치매의 치료	김영훈 (인제의대)
14:00-15:30	치매관련제도	한일우 (용인효자병원)
15:30-17:00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최상섭 (국립법무병원)
17:00-18:00	질의 및 응답	

9월 12일(일)

08:30-09:00	등록 및 접수	
09:00-10:30	증례분석 및 치료계획수립 실습 (1) - AD	이영민 (부산의대)
10:30-11:15	증례분석 및 치료계획수립 실습 (2) - VD	권재철 (창원파티마병원)
11:15-12:00	증례분석 및 치료계획수립 실습 (3) - Dementia with BPSD	신일선 (전남의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증례분석 및 치료계획수립 실습 (4) - FTD	김은주 (부산의대)
14:00-17:00	시험	
17:00-18:00	수료식 및 댄스	

| 해외학회 참관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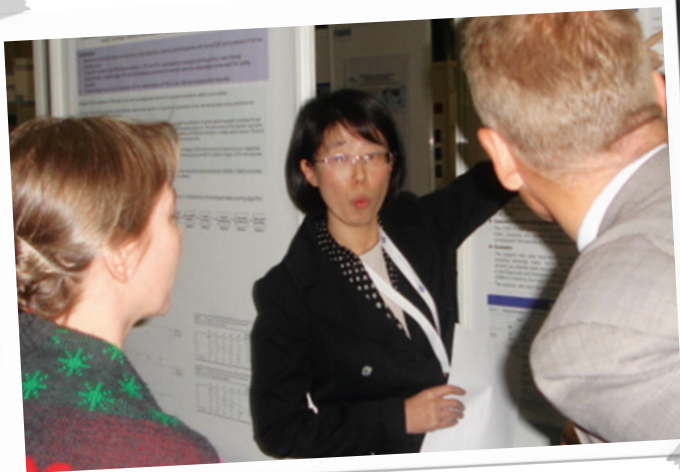
2010 EFNS GENEVA를 다녀와서...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정현강

EFNS (European Federation of Neurological Societies)는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경학과 관련된 42개의 학회의 연합체 격이라고 합니다. 1991년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처음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전체 회원 수가 12,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최근에는 해마다 9월이면 정기적으로 유럽 각국의 도시들을 순회하며 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14번째 정기 학회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습니다. 분주한 전임의 생활 중 추석연휴동안 꿀 같은 휴식을 가지며 재충전을 한 뒤, 연휴 다음날 학회를 위해 김기웅 선생님, 박준혁 선생님, 이정재 선생님, 김태희 선생님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Neurology 학회이기는 하나, 뇌경색에 대한 주제와 더불어 치매, 운동장애, 또 일부 수면에 관련된 다양한 세션들이 마련되어 있어 노인정신의학에 전공하는 사람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발표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학회 세션 구성 중 특징적인 것은 기본적인 프로그램들 사이사이에 다양한 teaching courses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15유로를 지불하고 사전에 신청을 하면 참석할 수 있는 세션으로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치매 심화 과정, 운동장애 기초 과정, 도플러 초음파에 대한 teaching course를 신청했습니다. 치매심화과정 같은 경우 함께 동행했던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쉽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저처럼 경험이

짧고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젊은 의사의 입장에서 기본 개념들을 정리해주는 비교적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teaching course는 도플러 초음파 시간이었는데,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한 강의 뒤에 경동맥 협착을 초음파로 어떻게 검진하는지를 직접 시연해서 보여준 뒤, 일부 자원자에게 직접 해보게끔 하고 현장에서 바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운동장애 세션들에서도 파킨슨 치매나 치매경과 중 나타나는 파킨슨증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연자들이 강의 중 구사하는 영어의 속도는 영미권 연자들보다 더 느리고 또렷한 편이어서 저처럼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포스터 발표는 전체 일정 중 이를 동안 열렸는데, 매일 약 1시간 30여분의 시간 동안 각



포스터 발표를 하는 김태희 선생님 (분당서울대학교 정신과)

| 해외학회 참관기 |

주제마다 좌장 격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배정되어 동일 주제에 해당하는 일련의 포스터들을 참석자들과 함께 돌아보며 발표자 및 라운드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 중인 ‘뇌영상의 백질 병변에 대한 자동분석 기법’에 대한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했는데, “젊은 초년병 신경과 의사들을 구해낼 훌륭한 주제.”라는 코멘트와 함께 좋은 논문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는 격려를 듣기도 했습니다. 상당 수의 학회 참석자들이 꼼꼼히 포스터를 읽어 보고 발표자와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몽블랑이 한눈에 보는 에귀 뒤 미디 (Aiguille du midi)
전망대에서 (오른쪽 첫번째가 필자)

전체적인 학회 규모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담했는데, 우리나라 신경정신의학 본 학회보다는 크나, APA보다는 작은 규모인 듯 했습니다. 점심식사는 스탠딩 뷔페식으로 라자냐, 샐러드, 빵류 등이 제공되었는데, 하루는 옆자리에 서서 식사를 하던 마케도니아에서 온 신경과 의사가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면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관계에 대해서 열을 올리면서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뭔가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정서와 닮은 구석이 많은 듯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연합 학회여서인지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두루 만날 수 있었고, 아시아 쪽 참석자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회학회의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중 하나는 역시 생경한 외국 문화를 경험하고 멋진 곳을 둘러보는 것일 겁니다. 귀국을 하루 앞두고 현지에서 한국인 가이드를 급하게 물색해 스위스 국경에 인접한 프랑스의 명산 몽블랑과 레만호 주변의 시골 마을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미니밴을 타고 약 한 시간 반 정도를 달리니 몽블랑 중턱에 있는 샤모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4000m가 넘는 전망대까지 단숨에 오를 수 있었는데, 케이블카에서 발을 내려 디디자 마자 눈 앞으로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눈이 부시도록 하얀 하얀 거대한 웅장한 설산이 펼쳐졌습니다.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산 속으로 난 터널길과 산 등성으로 연결된 계단길을 따라 전망대로 걸어 올랐는데, 높은 고도로 인해 살짝 현기증이 느껴지며 가볍게 발이 휘청하기도 했지만 주위로 펼쳐진 장관에 눈이 즐거워 개의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제네바로 돌아오는 길에 레만호 주변의 고성에도 잠깐 들렀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어릴 적 시골에서나 볼 수 있었던 펌프로 동네 꼬마 아이가 물을 길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올 정도로 옛 모습이 고

| 해외학회 참관기 |

스란히 간직된 작고 예쁜 마을이었습니다. 호젓한 호수 위에 오리 떼가 한가로이 떠 노닐고 있고, 시계 탑 종소리가 온 마을에 퍼져 울리는 곳이었습니다. 길목에는 몇몇 아트샵들이 있었는데, 보통 상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수제품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귀국 전 날이라 동행한 선생님들 모두 가족들에게 안겨줄 조그마한 선물들을 하나씩 사는 분위기였고, 저도 막 돌이 지난 아들내미를 위해 꼬갈 모자가 달리고 알록달록 손 뜨개로 수가 놓인 스웨터 점퍼를 하나 샀습니다. 근처에서 이번 여정의 마지막 저녁식사를 한 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참여했던 2010 EFNS GENEVA 학회내용도 만족스러웠고, 둘러봤던 스위스와 주변경관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위스가 원래 물가가 살인적으로 비싸고 먹거리가 풍성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모두를 덮고도 남을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내년 가을에는 부다페스트에서 2011 EFNS가 열린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Ebixa[®]
memantine

“새로운 기전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Lundbeck

한국룬드벡 주식회사

제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Tel. 02)431-6600 Fax. 02)431-6886
www.lundbeck.co.kr

It's Nice

Allosteric Nicotinic Modulator

Reminyl[®]
GALANTAMINE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문의들이 치매치료를 위해
아리셉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Eisai
Human Health Care Company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9 도심공향타워 12층
Tel. 02)3451-5500 Fax. 02)3451-5599
www.aricept.co.kr

NOVARTIS EXELON[®]
(Rivastigmine)

치매, 이제는 다르게
접근 할 때입니다.

Rapid decline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은
Exelon투여시 더욱더 효과가 우수합니다.
(12주후 ADAS cog에 있어서 5점이 향상)

| 학술대회 안내 |

- 2010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초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 여러분, 이제 가을의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의 결실도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간 대한노인정신의학회도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에 힘입어 창립 15주년 국제심포지움 개최, 기념화보집 발간, 사무실구입 등 굵직한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사무실 구입은 노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한 사회의 요구에 우리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진일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임상현장에서 이미 느끼고 계시듯이,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인해, 이제는 항치매약물 처방뿐 아니라 치매의 종류별 특징에 따른 개별적 접근 및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영역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번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치매환자의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들과 이를 제대로 해석해 내기 위한 교육내용, 다양한 종류의 치매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과 최신지견들에 대한 발표, 인지저하 및 행동문제에 대한 치료방법들의 소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일본과 국내에서 치매를 전공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교류와 연구활성화를 위해 서로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회원여러분, 이제 대한노인정신의학회는 신경정신의학회의 분과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 학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의 자리에도 많은 회원분들이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오 병 훈 올림

일 시 2010년 11월 19일(금) 09:30 ~ 18:00

장 소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및 중강당(1, 2)

주 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연수평점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4점,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예정) 이수평점 15점

등록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정회원 전문의	40,000원	50,000원
비회원 전문의	50,000원	60,000원
평생회원	면	제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30,000원	40,000원
정신과 전공의 및 군전문의	20,000원	30,000원
간호사, 심리학 전공자 및 기타 분야 전공자	20,000원	30,000원

사전등록 마감일 (연장) 2010년 11월 15일(월)까지 본인 이름으로 입금 후 홈페이지 <http://kagp.or.kr>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001-411994 예금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문의: 총무간사 김어수 kimeosu@gmail.com

| 학술대회 안내 |

2010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09:00~09:30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록

■ 연수교육

사회: 김어수 (총무간사)

치매환자 진료를 위한 임상술기 훈련 (신경심리학적 진찰술기)

좌장: 신영민 (북부노인병원), 이창욱 (가톨릭의대)

09:30~10:00 치매선별검사

유승호 (건국대)

10:00~10:30 치매임상단계평가

강호신 (성균관대)

10:30~11:00 종합적인지기능평가의 판독

홍창형 (아주대)

11:00~11:30 신경심리검사 판독연습

배재남 (인하대)

11:30~11:50 Q & A

11:50~13:00 Luncheon Break

■ 추계학술대회

사회: 김어수 (총무간사)

13:00~13:10 개회사

오병훈 (이사장)

Oral Session: 노인정신의학을 전공하는 한일 청년연구자들의 최근 결과물

좌장: 박종한 (대구가톨릭대), 오병훈 (연세대)

13:10~13:25 Dementia patients treated in the psychiatric ward of a Japanese general hospital

Keiichiro Nishida (Kansai Med University)

13:25~13:40 A role of E2-25K in amyloid neurotoxicity of Alzheimer's disease

김태인 (서울대 생명과학부)

13:40~13:55 The Effect of Cognitive training on Elderly Japanese by ADAS from Single-blind Multi-center RCT

Noriyuki Hayashi (Osaka University)

13:55~14:10 Altered brain white matter abnormal integrity in carriers of the APO

E epsilon4 allele with treatment remitted late onset depression: A risk for AD

임현국 (가톨릭대)

14:10~14:25 Coffee Break

"New Concept and New Findings for the Evaluation of Dementia"

좌장: 정인파 (고려대), 이정호 (인제대)

14:25~14:50 New concept and new findings for the evaluation of AD and MCI

이동영 (서울대)

14:50~15:15 New concept and new findings for the evaluation of VCD and VaD

이재홍 (울산대)

15:15~15:40 New concept and new findings for the evaluation of DLB and FTLTD

김도관 (성균관대)

15:40~15:55 Q & A

15:55~16:10 Coffee Break

"Advances in Treatment of Dementia"

좌장: 조맹제 (서울대), 연병길 (한림대)

16:10~16:35 Prescription strategy for the patients with memory impairment

한창수 (고려대)

16:35~17:00 Treatment of BPSD

이창욱 (가톨릭대)

17:00~17:25 Current CPG for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dementia

이영민 (부산대)

17:25~17:40 Q & A

17:40 Closing

17:40~18:20 General Assembly of KAGP

| 회원동정 |

>>> 김지관 회원

2010년 4월부터 경상병원에서 대동병원
(대구시 동구 효목2동 640-1)으로
근무지를 옮겨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회 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
은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한 후 이동우 총무이사 (전화: 02-950-1087, 팩
스: 02-936-8069, E-mail: kagp@hanmail.net)
에게 보내어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입금 후 이메일(kagp@hanmail.net)
부탁드립니다.

- 입회비 : 2만 원
- 연회비 : 3만 원
- 평생회원 회비 : 50만 원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온라인 계좌번호 :
우리은행 : 1006-801-243564
예금주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노인정신의학 논문 투고 안내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학회지 간행위원회
학회지 간행 위원장 : 배재남

1. 투고규정의 일반 원칙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의 투고규정
에 준합니다.
2. 투고자격 : 본 학회 논문과 편집위원회에서 의뢰되었거나
인정된 논문으로 합니다.
3. 원고의 종류 : 특집, 종설, 원저, 임상단보, 증례보고, 서평 등
입니다.
4.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습니다.
5. 학회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발행하며, 원고의 마감은 4월
말(6월분)과 10월 말(12월분)까지입니다

- 논문접수처 : 학회지 간행간사 : 신상은
122-9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2동 232-3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정신과 신상은
• 전화 : 02-300-8223
• 전송 : 02-300-8255
• E-mail : shin914@gmail.com

• 논문 투고시 유의사항 :

- ① 투고 논문은 인쇄본 3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접수
합니다. 이 중 심사를 받을 2부에는 표지, 본문, 초록,
표 등에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
합니다. 수정한 원고도 3부를 제출합니다.
- ② 3.5인치 디스켓, CD 또는 E-mail로 영문초록을 포함
하여 논문인쇄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한글 혹은 MS
word로 작성하는 경우 A4용지에 두줄 간격으로 가
라쓰기를 하며, 1매에 25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 ③ 심사를 마치고 인쇄 예정인 논문은 별도의 영문심사
위원이 영문초록을 검토하게 되며 이때 저자에게 알
리지 않고 영문초록이나 본문의 일부를 바꿀 수 있습
니다.
- ④ 심사가 끝난 완성논문은 인쇄본과 함께 파일(E-mail
가능)로 담아 제출합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사무처

139-87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2 LG 서초에클라트 1520호

이동우 (총무이사)

• 전화 : 02-950-1087 • 팩스 : 02-936-8069 • E-mail : kagp@hanmail.net

김여수 (총무간사)

• 전화 : 031-760-9510 • 팩스 : 031-761-7582 • E-mail : kimeosu@gmail.com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원진

학회직책	성명	소속	E-mail	전화	FAX
이사장	오병훈	연세대학교 광주세브란스병원	drobh@chol.com	031-765-0443	031-761-7582
고문	곽동일	근로복지공단 본부	ambrosek_kr@yahoo.co.kr	02-2670-0513	02-2670-0469
	유계준	김병후 정신과의원	kjy0036@hanmail.net	02-332-6373	02-325-6105
	이정호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leedharmas@hanmail.net	02-950-1083	02-936-8069
	박종한	대구가톨릭병원	jpark@cu.ac.kr	053-650-4785	053-623-1694
	이형영	전남의대	hylee@chonnam.ac.kr	061-331-9000	061-331-9950
	우행원	우행원신경정신과의원	hwwoo123@hanmail.net	02-742-0002	02-743-8686
	연병길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knpa@hallym.or.kr	02-2224-2268	02-487-0544
	정인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junginkwa@hanmail.net	02-818-6738	02-852-1937
부이사장	신영민	서울특별시립 북부노인병원	knhnp@hanafos.com	02-2036-0208	02-2036-0209
	정한용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hanyjung@schbc.ac.kr	032-621-5232	032-621-5018
차기이사장	조맹제	서울대학교병원	mjcho@snu.ac.kr	02-2072-3155	02-744-7241
총무이사	이동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dwlee@sanggyepaik.ac.kr	02-950-1990 (792)	02-936-8069
학술이사	김도관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paulkim@skku.edu	02-3410-3582	02-3410-0941
기획이사	유승호	건국대학교병원	shryu@kuh.ac.kr	02-2030-7567	02-2030-7749
교육이사	이창욱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jihan@catholic.ac.kr	02-590-2789	02-594-3870
홍보이사	김기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kwkimmd@snu.ac.kr	031-787-7432	031-787-4058
국제이사	오강섭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ks2485@lycos.co.kr	02-2001-2481	02-2001-2211
간행이사	배재남	인하대학교병원	jnbae@inha.ac.kr	032-890-3592	032-890-3580
보험이사	최종혁	국립의료원	jhc56@hanmail.net	02-2260-7292	02-2268-5028
수련이사	홍창형	아주대학교병원	antiaging@ajou.ac.kr	031-219-5185	031-219-5183
무임소이사	김도훈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dohkim@hallym.ac.kr	033-252-9970	033-244-0317
	김희철	계명대학교병원	mdhck@dsmc.or.kr	053-250-7813	053-250-7810
	신일선	전남대학교병원	shinilseon@hanmail.net	062-220-6146	062-225-2351
	김성환	동아대학교병원	zapcho@yahoo.co.kr	051-240-5461	051-253-3542
	김정란	충남대학교병원	kimjl@cnu.ac.kr	042-280-7287	042-220-7886
	이영문	아주대학교병원	humanishope@hanmail.net	031-219-5180	031-219-5179
	한창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hancs@korea.ac.kr	031-412-6548	031-412-5144
감사	함웅	계양병원	hahm405@chollian.net	031-455-3333 (교환 510)	031-452-4110
감사	김영철	이대목동병원	kyc341@hanmail.net	02-2650-537	02-2650-5163
평이사	강홍조	초정노인정신병원	dr_hckang@yahoo.co.kr	043-213-7123	043-213-7117
	고효정	서울시립은평병원	asteria90@yahoo.co.kr	02-300-8224	02-300-8097
	기백석	중앙대학교병원	cauhpkbs@cau.ac.kr	02-6299-1516	02-825-8474
	김성운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sykim@amc.seoul.kr	02-3010-3417	02-485-8381
	김영돈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ydkim@sungospital.com	042-220-8838	042-252-5505
	김영훈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npkyh@chol.com	051-890-6188	051-894-2532
	서국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suhgh@chol.com	02-2639-5289	02-2677-9095
	이민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leeminso@korea.ac.kr	02-920-5354	02-927-2836
	전진숙	고신대학교병원	cheonjs@kosin.md	051-990-5070 / 6245	051-241-5069
	장안기	국립서울병원	changmnh@unitel.co.kr	02-2204-0101	02-3436-0895
	정은기	국립서울병원	ekchg@unitel.co.kr	02-2204-0100	02-447-5737
	이철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cle512@cmc.cuk.ac.kr	02-590-2722	02-594-3870
	고효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hyojin54@yahoo.co.kr	042-220-9020	042-221-4776
	김인성	공주노인전문병원	kis6109@chol.com	041-852-5233	041-852-5235
	김재민	전남대학교병원	jmkim@chonnam.ac.kr	062-220-6143	062-225-2351
	김상훈	조선대학교병원 정신과	shckim@chosun.ac.kr	062-220-3105	062-225-3659
	정상근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과	skchung@chonbuk.ac.kr	063-250-1398	063-275-3157
	이남진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njlee2001@hanmail.net	063-221-9005	063-221-0223
	이상연	이상연신경정신과의원	nplsyl@hanmail.net	02-737-5511	02-739-1133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료원	soothing@nate.com	02-958-8419	02-6008-6176
	이강준	일산백병원	lkj@ilsanpaik.ac.kr	031-910-7261	031-910-7268
	조성진	길병원	sjcho@gilhospital.com	032-460-3356	032-460-3434
	이준영	보라매 병원	benji@snu.ac.kr	02-840-2772	02-744-7241
	김재현	원광대학교병원 정신과	wonkjh@wonkwang.ac.kr	031-390-2236	
	문석우	건대충주병원	hessem@medigate.net	043-840-8990	043-840-8529
	박종원	웅인정신병원	ymhjwpark@hanmail.net	031-288-0201	031-288-0180
	임현국	성빈센트병원	drblues@dreamwiz.com	02-590-2718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공고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회원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수렴하는 장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홍보위원회에서 검토 후 게재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김기웅 홍보이사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kwkimmd@snu.ac.kr
박준혁 홍보간사 (제주의대, 제주대학교병원) empath@nate.com